

대학생의 내면화 및 외현화된 행동문제
: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대학생활적응을 중심으로

College Student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민하영*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학과

전임강사 이윤주**

천안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전임강사 이영미

Dept. of Child, Catholic Univ. of DaeGu

Assistant Professor : Min, Ha-Young

Dept. of Education, Catholic Univ. of DaeGu

Lecturer : Lee, Yoon-Joo

Division of Social Welfare, Cheonan University

Lecturer : Lee, Young-Mi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 internalizing/externalizing problems,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college adjustment. The participants were 281 freshmen and sophomores (103 males and 178 females) from a university in Gyeongbuk Province. A self-report survey questionnaire was used to measure parent-child communicati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and the student's internalizing/externalizing problems.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d single and multiple regression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college students' communication with parents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ir internalizing/externalizing problems. (2) The college students' communication with parents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adjustment to college life. (3) The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ir internalizing/externalizing problems. (4) The college students' communication with parents partly or fully exerted indirect effects on the students' internalizing/externalizing problems, mediated by their adjustment to college life.

▲주요어(Key Words) : 부모와의 의사소통(parent-child communication), 대학생활적응 (adjustment to college life), 대학생의 내면화/외현화된 행동문제(college students' internalizing/externalizing problems)

* 주 저 자 : 민하영 (E-mail : hymin@cu.ac.kr)

** 교신저자 : 이윤주 (E-mail : yjlee@cu.ac.kr)

I. 문제제기

행동문제는 사회적 맥락의 문화적 규범에 따라 규정(Kaufmann, 1981)되기 때문에 명확한 개념을 정의 내리는 것은 어렵다. 다만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행동적 부적응 결과로 포괄 정의되고 있을 뿐이다(한미현, 1996). 행동 문제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행동적 부적응의 결과임을 고려해 볼 때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이 다양으로 요구되는 대학 1, 2학년은 행동문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시기라 할 수 있다. 대학 1, 2학년은 후기 청소년기의 빌달과업이라 할 수 있는 자아정체감을 추구하거나 형성해야 하는 시기일 뿐 아니라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과 자율성을 획득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의 '주입과 획일'의 교육 환경에서 벗어나 '자율과 선택'이라는 새로운 대학 교육 환경에 적응(지선근·한종철, 1999)해야 하고, 전공 결정을 위한 전공 탐색 및 전공에 대한 정체감을 형성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아동기나 청년기의 행동문제가 성인기 성격이나 환경 적응력을 예측하는 의미있는 변인임(Lober & Hay, 1997; Krettenauer, Ullrich, Hoffman, & Edelstein, 2003; Kupersmidt, & Coie, 1990)을 생각해 볼 때, 대학 1, 2학년의 행동문제는 학업에 전념하고 장래의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대학생들에게 우선 예방되고 중재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의 내면화/외현화된 행동문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학령기 아동이나 중고등학교 청소년만큼 크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대학 1, 2학년을 대상으로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함으로써 대학 1, 2학년생의 행동문제를 조기에 예방, 중재하거나 상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행동문제는 내면화된 문제와 외현화된 문제로 구분되고 있다 (Barber, 1992; Reynolds, 1992). 내면화된 문제란 자신의 내부로 향하는 문제로 개인의 감정이나 정서, 상태를 의미한다. 외현화된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문제로 타인에 대한 부정적 행위나 행동 등을 말한다(Eric & Russell, 1996). 행동문제를 CBCL로 척도화한 Achenbach(1993)는 행동문제를 위축행동, 신체증상, 불안/우울, 주의문제, 사회성문제, 사고문제, 비행, 공격행동 등으로 기술했으나 행동문제 중 불안, 우울 등과 같은 정서적인 행동문제를 내면화된 문제로, 주의산만, 공격성, 과잉행동 등과 같은 행위적 문제를 외현화된 문제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행동문제 중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불안/우울 등을 경험하기 쉬우며(김수진·김수현, 1997; Barber, 1992)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경험하는 위축 등의 내면화된 문제를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외현화된 문제 중 공격적 행동이나 과잉 행동은 집단에서의 따돌림이나 배척의 원인(Kupersmidt, & Coie, 1990)이 되는 행동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확대되고 대인관계가 중요하게 평가되는 후기 청소년기에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할 행동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문제는 일반적으로 아동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가정환경이나 학교환경 등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 설명되고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이 지지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일 때, 교사나 친구로부터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행동문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윤주·김영신·노주선, 2000; 정나연·이정숙, 1999; 하영희, 2003; 한미현, 1996; Barnes & Farrell, 1992; Buehler, & Gerard, 2002; Pettit, Bates, & Dodge, 1997; Galambos, Barker, & Almeida, 2003; Kim, Conger, Elder, & Lorenz, 2003; Shek, 2002).

대학생 역시 가정환경내의 부모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이나 대학생 활환경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이 행동문제 유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의 경우 사회적 교류의 확장으로 부모-자녀간 관계가 재구성되는 시기(Windle, 1992)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경험되는 스트레스 경험보다 새롭게 경험하는 대학생 활환경에서의 사회적 관계 경험이 행동문제를 설명하는데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 예측된다. 대학생 활적용은 중,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적용이 심리, 사회적 적응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조봉환·임경희, 2003; 한상철·김혜원·설인자·임영식·조아미, 2003)처럼 대학생의 심리, 정서적 적응에 중요 요인(김성경, 2003)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교 적응이 학교에 대한 선호, 학교 구성원 및 동료 친구와의 긍정적 관계, 학교에서의 활동성 등으로 평가되고 있음(민병수, 1991; Ladd, 1990)을 고려해 볼 때, 교수나 동료 선후배 등 학교 구성원과의 만족스럽지 못한 관계나 학교 행사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배회하는 것과 같은 낮은 학교 적응은 대학에 입학하거나 전공을 선택한 대학 1, 2학년생에게 부정적 생활 경험이며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스트레스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스트레스나 부정적 생활 경험이 우울이나 반사회적 행동 등의 심리, 사회적 부적응을 설명하는 중요 요인임(심희옥, 1998)을 고려해 볼 때, 그리고 학교에서의 긍정적인 대인관계 경험이 반사회적 행동을 예방하는 요인(Gottfredson, Gottfredson, & Hybel, 1993; Rutter, 1987)이라는 지적을 생각해 볼 때 대학생의 대학생 활적용 특히 대학생 활환경에서의 사회적 적응은 불안이나 우울 또는 위축과 같은 내면화된 문제 뿐 아니라 공격이나 과잉행동과 같은 외현화된 행동문제의 의미있는 예측 변인이라 할 수 있다.

대학생 활적용이 대학생의 정서적, 행동적 부적응을 의미있게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고려된다고 해서 대학생의 내면화 또는 외현화된 행동문제를 이해하는데 있어 부모의 영향력을 간과할 수는 없다. 대학생들조차 자신이 경험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 가운데 자신을 가장 많이 지지해주는 사람은 부모라고 지각하기 때문이다(이현주, 2001). 이는 부모와의 관계가 대학생의 심리, 사회적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내면화 또는 외현화된 행동문제를 부모-자녀관계와 대학생 활적용과 연관시켜 살펴보되, 사회적 교류의 확장으로 부모-자녀간 관계가 재구성되는 시기

(Windle, 1992)가 대학생임을 고려하여 대학생의 행동문제에 대한 부모 - 자녀관계와 대학생활적용의 영향력을 Baron과 Kenny(1986)의 모델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Baron과 Kenny(1986)는 종속 변인에 대한 독립 변인의 직, 간접 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일련의 검증 단계를 제시한 바 있다. 첫째, 독립 변인은 종속 변인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독립 변인은 매개 변인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독립 변인을 통제했을 때, 매개 변인은 종속 변인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며 매개 변인이 통제 될 때 종속 변인에 미치는 독립 변인의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Baron과 Kenny(1986)의 모델을 이용할 경우, 대학생의 행동문제에 대한 부모-자녀 관계의 직, 간접 효과를 대학생활적용과 함께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과 훈육, 그리고 보살핌에서 상당히 벗어난 대학생의 부모-자녀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변인으로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선정하였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Barnes & Olson, 1982; Galvin & Brommel, 1986), 가족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주요 변인으로 사용되고 있다(김오남·김경신, 1994). 이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질적 관계를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라고 지각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고 기능적인 가정환경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이중적이고 폐쇄적이며 간접적이고 비판적이라고 지각하는 것은 부모 - 자녀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나 갈등이 해결되어지지 못한 채 높은 욕구 불만으로 축적되어 있는 역기능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대학1, 2학년생의 내면화된 또는 외현화된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대학생활적용 측면에서 모색함으로써 대학 1, 2학년의 대학생활적용을 지원하려는 이 연구는 Baron과 Kenny(1986)의 모델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대학생의 내면화/외현화된 행동문제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대학생활적용은 대학생의 내면화/외현화된 행동문제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용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4) 대학생의 내면화/외현화된 행동문제에 대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대학생활적용간 관계는 어떠한가?

이 연구의 결과는 건강한 대학생활을 지원하는 각 대학의 학생생활연구소나 학생상담기관에서 대학생의 행동문제를 상담하거나 지도할 때 또는 예방이나 중재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유

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대구경북지역 대학의 1, 2학년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대학생은 281명으로 남학생이 103명(36.7%), 여학생이 178명(63.3%)이었다. 1학년은 168명(59.8%), 2학년은 113명(40.2%)이었으며, 만 17세 21명(7.5%), 18세 115명(40.9%), 19세 58명(20.6%), 20세 87명(31.0%)으로 평균 연령 만 18.7세로 나타났다. 인문사회계열 전공은 150명(53.4%), 자연공과계열 학생은 121명(43.1%)였다. 예체능계열 전공이 10명이었으나, 수가 적어 전공계열 구분에서 결측 처리하였다.

2. 연구척도

1) 대학생의 내면화된 또는 외현화된 행동문제 척도

Achenbach(1991)가 4-18세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한 아동행동 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 List: CBCL)와 이를 토대로 한미현과 유안진(1995), 한미현(1996)이 구성한 아동문제 행동 척도 그리고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1997)가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척도(Korean Child Behavior Check List: K-CBCL)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Achenbach(1991)의 CBCL은 만 4세에서 만 18세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으로, 평균 만 18세에 이르는 우리나라 대학 1, 2학년생의 행동문제를 측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행동문제(29문항)는 불안(7문항: 불안이나, 긴장, 걱정 등의 행동), 위축(7문항: 자기 의견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쑥스러워하거나 위축되는 행동), 과잉(6문항: 부산한 행동이나 급한 성미, 주의집중 곤란 등 의 주의산만한 행동), 공격(9문항: 물건을 부수거나 사람을 때리는 행동)행동의 하위영역으로 구성한 후, 불안과 위축을 내면화된 행동문제로, 과잉과 공격행동을 외현화된 행동문제로 분류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리커트 방식으로 자기 보고식 응답을 하도록 하였다. 자기 보고식 응답은 내면화된 문제와 같은 자기 내부의 정서적 문제를 파악하는데 부모나 교사 평정 보다 유리하다는 잇점이 있다(조봉환·임경희, 2003). 응답가능 점수는 내면화 14점-56점, 외현화 15점-6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면화/외현화된 행동문제가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내면화 .80, 외현화 .81로 나타났다. 한편 내면화/외현화된 행동문제 평균(표준편차)은 각각 34.77(5.44), 35.89(5.65)로 나타났다.

2) 부모와의 의사소통 척도

Barnes와 Olson(1982)이 제작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척도(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중 청소년용 설문지(Adolescent Form)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20문항으로 이루어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에게 고민거리가 생긴다면 어려워하지 않고 부모님과 의논할 수 있다.'와 같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면을 측정하는 문항(10문항)과 '어떤 사실에 대해 나의 솔직한 감정을 부모님께 이야기하기 것이 어렵다.'와 같이 부모와의 의사교환에 있어 주저하고, 주제 선택에 있어 조심을 하며 의사소통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적이며 문제적인 면을 측정하는 문항(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거의 그렇지 않다(2점)', '어쩌다 그렇다(3점)', '자주 그러는 편이다(4점)', '늘 그러는 편이다(5점)'의 5점 리커트로 측정되었으며 폐쇄적이고 문제성 있는 의사소통 문항은 역산 처리하였다. 응답가능 범위는 20점에서 100점이며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3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평균(표준편차)은 67.36(13.02)며,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며 긍정적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3) 대학생활적응 척도

대학생활적응 척도는 문교민(1994), 민병수(1991)의 중고생용 학교생활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중고생의 학교생활 척도를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척도로 수정 보완 사용한 것은 현재 이 연구와 병행 연구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학교적응 연구와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중고등학교생활의 연속선상에서 대학생활을 접근하는 것이 신입생이 많이 포함된 대학 1, 2학년생의 대학생활 적응 과학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교민(1994)과 민병수(1991)의 척도를 토대로 '학교에서 과 친구들과 잘 어울려 생활한다' 등 '교수와의 관계', '교우 관계', '학업활동', '학교규칙', '동아리 및 학교행사' 등과 관련한 5개 하위 영역 27개 문항으로 척도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응답가능 범위는 27-135점이며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9, 평균(표준편차)은 83.78(11.36)로 나타났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대학생활 적응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조사 절차

2003년 11월 10일에서 14일 사이 아동학 및 교육학 전공 교수 3인 및 경북대구지역 대학생 7명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설문 구성과 표현내용 및 이해를 알아보기 위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본 조사용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2003년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 사이에 본 조사용 질문지를 이용하여 1,

2학년 대학생을 중심으로 자료수집 하였다. 아동학이나 교육학을 전공한 대학원생들이 대학 내 강의실이나 학생회관 등에서 질문지를 배부한 후, 그 자리에서 응답하도록 한 후 수거하였다. 응답은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배부된 질문지 중 응답이 부실한 자료를 제외한 281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되었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분석은 SPSS Win 9.0프로그램의 t검증, 단순 및 중회귀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분석결과는 유의수준 $\alpha<.05$ 에서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연구문제 분석 전에 대학생의 내면화/외현화된 행동문제에 대한 성별 및 학년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표 1>에서처럼 대학생의 내면화/외현화된 행동문제는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성별의 경우 내면화된 행동문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외현화된 행동문제의 경우 여학생(외현화 행동 평균(표준편차):36.54(5.52))이 남학생(외현화 행동 평균(표준편차):34.79(5.82))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2.53$, $p<.05$). 이에 내면화된 행동문제의 경우 성별과 학년 구분 없이 연구문제를 분석하며, 외현화된 행동문제의 경우 학년 구분 없이 성별만 분리하여 분석하기로 결정하였다. 부모와의 의사소통, 대학생활적응, 그리고 대학생의 내면화/외현화된 행동문제 관계 규명 시, 성별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함이다.

<표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대학생의 내면화/외현화된 행동문제

변인	집단구분	내면화된 행동문제 평균(표준편차)	외현화된 행동문제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학생(103)	34.21(5.53)	34.79(5.82)
	여학생(175)	35.10(5.38)	36.54(5.52)
	t값	-1.31	-2.53*
학년	1학년(168)	34.32(5.55)	35.91(5.84)
	2학년(110)	35.45(5.23)	35.87(5.40)
	t값	-1.70	.06

주) * $p<.05$

주) 남학생의 외현화 행동 중 공격과 과잉행동 평균(표준편차):

19.41(4.38), 15.38(2.57)

여학생의 외현화 행동 중 공격과 과잉행동 평균(표준편차):

21.58(4.09), 14.97(2.75)

<연구문제 1>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대학생의 내면화/외현화된 행동문제간 관계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대학생의 내면화/외현화된 행동문제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대학생의 외현화된 행동의 경우 예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표 2>에서와 같이 대학생의 내면화된 행동문제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의해 부적으로 유의하게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adjR^2=.04$, $\beta=-.21$, $p<.001$). 즉,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지 못할수록 대학생의 내면화된 행동문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외현화된 행동문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의해 부적으로 유의하게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학생: $adjR^2=.21$, $\beta=-.46$, $p<.001$, 여학생: $adjR^2=.06$, $\beta=-.25$, $p<.001$). 대학생의 외현화된 행동문제 역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지 못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현화된 행동문제에 대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설명력은 여학생($\beta=-.25$)보다 남학생($\beta=-.46$)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Baron과 Kenny (1986)의 매개 변인에 관한 첫째 조건을 충족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연구문제 2> 대학생활적용과 대학생의 내면화/외현화된 행동문제간 관계

대학생활적용과 대학생의 내면화/외현화된 행동문제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에서와 같이 대학생의 내면화된 행동문제는 대학생활적용에 의해 부적으로 유의하게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adjR^2=.21$, $\beta=-.46$, $p<.001$). 즉, 대학생활적용에서의 사회적 적응이 만족스럽지 못할수록 대학생의 내면화된 행동문제 가능성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외현화된 행동문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대학생활적용에 의해 부적으로 유의하게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학생: $adjR^2=.21$, $\beta=-.47$, $p<.001$, 여학생: $adjR^2=.26$, $\beta=-.51$, $p<.001$). 대학생의 외현화된 행동문제 역시 대학생활적용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현화된 행동문제에 대한 대학생활적용의 설명력은 남녀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3>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대학생활적용간 관계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대학생활적용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에서와 같이 전체 대학생($adjR^2=.12$, $\beta=.35$, $p<.001$) 뿐 아니라 남학생($adjR^2=.08$, $\beta=.30$, $p<.001$)과 여학생($adjR^2=.14$, $\beta=.38$, $p<.001$) 모두의 대학생활

<표 2> 대학생의 내면화/외현화된 행동문제에 대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단순회귀분석

종속변인	대학생의 내면화된 행동문제				대학생의 외현화된 행동문제				
	남학생		여학생						
독립변인	B	Std. Error	β	B	Std. Error	β	B	Std. Error	β
상 수	40.71	1.70		52.14	3.35		42.95	1.96	
부모와의 의사소통	-.09	.03	-.21***	-.26	.05	-.46***	-.10(.03)		-.25***
$adjR^2$.04			.21			.06		
F값	12.65***	(df=1,271)		26.84(df=1,99)***			11.36(df=1,169)***		

주) *** $p<.001$

<표 3> 대학생의 내면화/외현화된 행동문제에 대한 대학생활적용 단순회귀분석

종속변인	대학생의 내면화된 행동문제				대학생의 외현화된 행동문제				
	남학생		여학생						
독립변인	B	Std. Error	β	B	Std. Error	β	B	Std. Error	β
상 수	53.48	2.21		55.34	3.97		57.62	2.77	
대학생활적용	-.22	.03	-.46***	-.24	.05	-.47***	-.25	.03	-.51***
$adjR^2$.21			.21			.26		
F값	71.41***(df=1,262)			26.71***(1,94)			58.98***(1,165)		

주) *** $p<.001$

<표 4> 대학생 활적응에 대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단순회귀분석

독립변인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					
				남학생		여학생			
	B	Std. Error	β	B	Std. Error	β	B	Std. Error	β
상 수	63.43	3.45		62.42	7.43		63.28	3.87	
부모와의 의사소통	.30	.05	.35***	.34	.11	.30**	.30	.06	.38***
adjR ²	.12			.08			.14		
F값	36.24*** (df=1,259)			9.31**=.003 (df=1,99)			.27.74*** (df=1,164)		

주) ***p<.001, **p<.01

적응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의해 정적으로 유의하게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높은 학교 적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Baron과 Kenny (1986)의 매개 변인에 관한 둘째 조건을 충족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연구문제 4> 대학생의 내면화/외현화된 행동문제에 대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대학생활적응간 관계

대학생의 내면화/외현화된 행동문제에 대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의 결과를 보면, 앞에서 살펴본 <표 2>에서처럼 대학생의 내면화/외현화된 행동문제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의해 부적으로 영향 받지만 대학생활적응을 통제할 경우, 내면화에 대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영향력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학생의 외현화된 행동문제 역시 대학생활적응을 통제할 경우 부모와의 의사소통으로 인한 영향력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학생의 외현화된 행동문제의 경우 대학생활적응 통제시 부모와의 의사소통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지만 설명력이 12%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6$, $p<$

.001--> $\beta=.34$, $p<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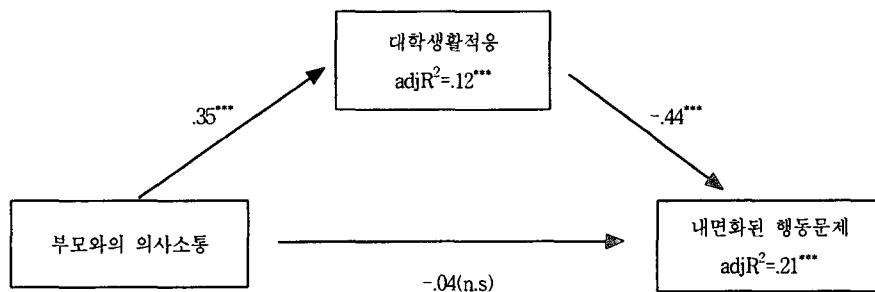
한편, 대학생의 내면화/외현화된 행동문제에 대한 대학생활적응의 설명력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화 및 남학생의 외현화, 여학생의 외현화 행동문제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Baron과 Kenny (1986)의 매개 변인에 관한 3, 4번째 조건을 충족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대학생의 내면화된 행동문제에 대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영향력은 직접적이기 보다 대학생활적응을 매개변인으로 한 간접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여학생의 외현화된 행동문제에 대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영향력 역시 대학생활적응을 매개 변인으로 한 간접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남학생의 외현화된 행동문제에 대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영향력은 대학생활적응을 통해 부분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와 <표 5>를 토대로 부모와의 의사소통, 대학생활적응, 그리고 대학생의 내면화/외현화된 행동문제의 관계를 <그림 1>, <그림 2>, <그림 3>과 같이 경로 모형으로 정리하였다. 각각 그림에서의 경로 모형 계수는 <표 4>와 <표 5>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사용하였다(이홍탁,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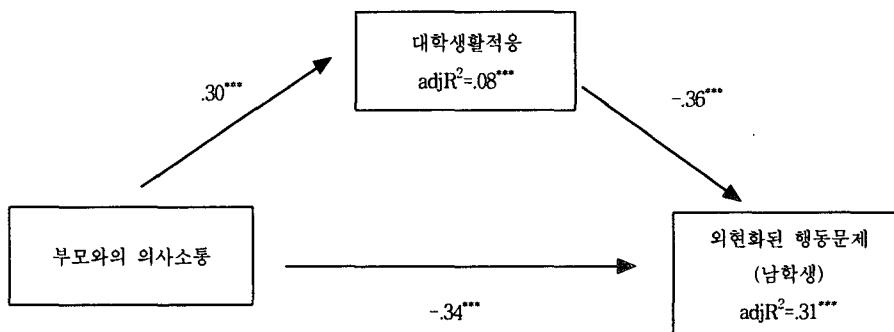
<표 5> 대학생의 내면화/외현화된 행동문제에 대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대학생활적응 중회귀분석

독립변인	대학생의 내면화된 행동문제			대학생의 외현화된 행동문제					
				남학생		여학생			
	B	Std. Error	β	B	Std. Error	β	B	Std. Error	β
상 수	53.83	2.37		63.32	4.32		58.33	2.89	
부모와의 의사소통	-.02	.02	-.04	-.19	.05	-.34***	-.03	.03	-.07
대학생활적응	-.21	.03	-.44***	-.18	.05	-.36***	-.24	.04	-.49***
adjR ²	.21			.31			.26		
F값	34.69*** (df=2,257)			21.74*** (df=2,92)			29.63*** (df=2,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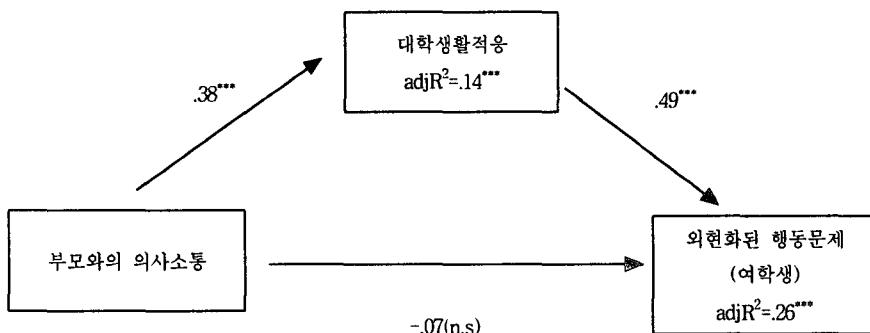
주) ***p<.001



<그림 1> 대학생의 내면화된 행동문제에 대한 대학생활적응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



<그림 2> 남자 대학생의 외현화된 행동문제에 대한 대학생활적응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



<그림 3> 여자 대학생의 외현화된 행동문제에 대한 대학생활적응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

IV. 논의 및 결론

대학 1, 2학년생은 자아정체감 형성 및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라는 발달 과정상의 스트레스로 인해, 또는 급격히 변화된 학교 환경 적응과 전공 결정이라는 정신적 부담 등으로 인해 내면화 또는 외현화된 행동문제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많이 안고 있다. 이에 대학 1, 2학년생의 내면화 또는 외현화된 행동문제를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그들의 내면화/외현화된 행동문제를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대학

생활적응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 및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대학생의 내면화된 행동문제는 학년과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외현화된 행동문제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여학생의 외현화된 공격 행동문제가 남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난 예비 분석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모나 교사가 평정할 경우 남아가 여아에 비해 높은 외현화된 공격 행동문제를 보이고 있음(Dunn, 2001; Moffitt, Caspi, Rutter, & Silva, 2001)을 고려할 경우 자기 보고에 의한 여대생의 높은 외현화된 행동문제는 적극적인 자기 표현을 전

통적인 성역할 측면에서 외현화된 행동 특성으로 해석하거나 과잉 평가한 것은 아닌가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추후 연구를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생의 내면화된 또는 외현화된 행동문제는 긍정적인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부적으로 관계되어 있다. 이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개방적이며 자유롭거나 긍정적이라 평가하지 않는 대학생은 내면화된 또는 외현화된 행동문제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대학생의 내면화된 또는 외현화된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부모의 관심 부족이 불안과 우울성향의 의미있는 변인이라고 지적한 연구(김선희·김경연, 1999; Alnaes, & Totgersen, 1990; Buehler, & Gerard, 2002; Silove, Parker, Hadzi-Pavlovic, Manicavasagar, & Blaszczynski, 1991) 및 부모와의 부정적 관계가 기본적인 욕구충족의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이에 따른 좌절 경험에 공격적 행동을 증가시킨다는 연구(한상철 외, 2003; Patterson, 2002)와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생의 소외감이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과 부적 관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강완숙, 2000)와 유사한 것으로 가족 관계보다 사회적 관계 비중이 커지는 후기 청년기에 이르렀다 해도 부모와의 의사소통으로 대변되는 가정환경은 여전히 대학생의 심리, 사회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대학생의 내면화된 또는 외현화된 행동문제는 대학생 활동적용과 부적으로 관계되어 있다.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은 내면화된 또는 외현화된 행동문제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내 사회적 관계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 우울이나 사회적 불안과 같은 정서장애나 외현적 행동장애를 더 많이 나타낸다고 지적한 선행연구(Cassidy & Asher, 1992; Rabiner, Keane, & MacKinnon-Lewis, 1993)와 일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대학생의 경우 대인 관계 형성과 유지가 주요 스트레스원 중 하나임(Abouserie, 1994; Baker, McNeil, & Siryk, 1985)을 생각할 때, 대학 1, 2학년생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유지 또는 사회적 지지 자원 활용에 대한 교육과 상담이 대학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학생활적용은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정적으로 관계되어 있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대학생활적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온정적이고 지지 적일수록 전공 선택이나 진로 결정 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이현숙·조한익, 2004) 및 부모의 지지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과 관계 있다는 연구결과(지선근·한종철, 1999) 등 부모-자녀관계가 대학생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용을 위해 부모가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지원으로 역할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섯째, 남녀 대학생의 내면화된 행동문제에 대한, 그리고 여

학생의 외현화된 행동문제에 대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영향은 대학생활적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남학생의 외현화된 행동문제에 대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직접 영향을 미치는 면도 있으나, 부분적으로 대학생활적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 남녀 대학생의 내면화/외현화된 행동문제는 부모와의 관계보다 대학생활적용에 의해 더 많이 설명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론은 (연구문제 4)의 결과로부터 도출한 것이다.

대학생은 부모에 대한 의존성이나 동일시보다 자율과 독립에 대한 욕구가 크다.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 관계의 재구성(정옥분, 2002; Windle, 1992)을 통해 생애 가운데 가장 먼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허혜경·김혜수, 2002)한다. 따라서 대학생에게 부모는 여전히 중요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로 기능하지 않는다(Windle, 1992).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보면 대학 1, 2학년생의 내면화된 또는 여학생의 외현화된 행동문제가 부모와의 의사소통보다 대학생활적용에 의해 더 많이 설명된다는 사실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한편 외현화된 행동문제에 대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영향력이 남녀 대학생에 따라 직, 간접 차이가 나는 것은 내면화된 또는 외현화된 행동문제 유형에 따라 부모의 직, 간접 영향에 차이가 난다는 김경희와 황혜정(1998)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연구문제 4>의 결과에서 외현화된 행동문제에 대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영향력에서 여학생은 간접적이나, 남학생은 부분적이나마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낫다는 것은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에 있어 자유롭게 사실이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지지받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부모-자녀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나 갈등이 해결되어지지 못한 채 높은 욕구 불만으로 축적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곧 역기능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역기능적 가정환경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남아가 여아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함(Lober & Stouthamer-Loeber, 1998)을 고려해 볼 때, 그리고 여아의 공격적 외현행동은 사회적 관계로부터 추구하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타난다는 점(Crick & Grotpeter, 1995)을 고려해 보면 <연구문제 4>의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남학생의 외현화된 행동문제는 부모 관계의 질에 의해 부분적으로 민감하게 영향받는 경향이 있으나, 여학생은 대학생활안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관계가 어느 정도 적응적이라면 공격적 또는 과잉행동과 같은 외현화된 행동으로 발전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의 내면화/외현화 행동문제가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의해 간접적으로 영향받을 만큼 대학생활적용에 의해 상당히 설명되고 있음을 밝혔지만, 대학생의 내면화 또는 여학생의 외현화된 행동문제 예방을 위해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같은 부모-자녀 관계를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생의 내면화 또는 외현화된 행동문제에 의미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학생활적응이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의해 상당히 설명되고 있음을 고려해 보면 대학생에게 있어 부모는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지지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남학생의 외현화된 행동문제가 부모와의 관계 즉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의해 부분적이나마 직접적으로 영향받고 있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 1, 2 학년생의 내면화된 또는 외현화된 행동문제의 예방과 개선을 위해서는 학교생활적응 향상을 위한 대학 차원에서의 노력 뿐 아니라 부모와의 긴밀한 협조 노력도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새로운 학업 환경과 후기 청소년기 발달 과정으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대학 1, 2학년생의 행동 문제 가능성을 미연에 예방하고 이를 상담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탐색하고 확보하려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특정 지역의 대학생만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함으로써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가 요구되는 제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 보호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는 대학생 자신의 인성 특성이나 정서성 등 다양한 변인(김선희 · 김경연, 1999; 남현미, 1999; Caspi, Henry, McGee, Moffitt, & Silva, 1995)을 함께 고려하지 못한 채,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대학생활적응만을 토대로 대학생의 정서적, 행동적 문제만을 설명하고자 한 점은 추후 연구에 의해 개선 되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 접수일 : 2004년 05월 14일
- 심사일 : 2004년 05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4년 08월 03일

【참고문헌】

- 강완숙(2000). **지각된 부와 모의 가치, 부/모-자녀간 정서적 친밀도 및 부/모의 과잉통제와 대학생의 소외감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윤주 · 김영신 · 노주선(2000).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 또래의 수용, 친구의 지원과 사회적 자신감간의 구조 모델.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2), 65-78.
- 김경희 · 황혜정(1998). 저소득층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와 부모의 자녀양육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1(1), 12-26.
- 김선희 · 김경연(1999). 아동의 행동문제와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1), 155-166.
- 김성경(2003). 대학신입생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2), 215-237.
- 김수진 · 김수현(1997). 우울한 대학생의 대인관계 패턴과 내적갈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9(1), 409-441.
- 김오남 · 김경신(1994).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유형지각과 가족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32(3), 105-119.

- 김재운 · 이은순 · 강순화(1997). **한국대학생의 삶의 만족도.** 서울: 집문당.
- 남현미(1999).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교민(1994). **모의 교육태도와 아동의 학교적응.**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병수(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소영원(1997).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수준과 적응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향숙 · 장윤옥(200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이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189-202.
- 심희옥(1998). 아동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부정적 생활사건,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원과 부적응에 관한 종단연구. **아동학회지**, 19(2), 19-47.
- 오경자 · 이혜련 · 홍강의 · 하은혜(1997). **K-CBCL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이경아 · 정현희(1999).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교사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1(2), 213-226.
- 이현숙 · 조한의(2004).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취목표 및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89-106.
- 이현주(2001). 대학생의 심리 사회적 특성과 진로탐색활동의 인과관계 연구. **교육심리연구**, 15(3), 257-280.
- 이홍탁(2001). **사회조사 방법론-사회조사와 자료분석기법-**. 서울: 법문사.
- 정나연 · 이정숙(1999). 아동의 행동문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가족의 응집 및 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4), 61-71.
- 정옥분(2002). **청년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조봉환 · 임경희(2003).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 자기보고형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29-746.
- 지선근 · 한종철(1999). 부모의 지지 및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1(1), 109-130.
- 최영희(1999). 대학생활적응과 정서지능과의 관계 연구. **한국청소년복지학**, 1(1), 127-137.
- 하영희(2003). 개인변인과 환경변인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4(4), 29-39.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미현 · 유안진(1995). **아동행동평가척도(CBCL)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6(2), 5-21.
- 한상철 · 김혜원 · 설인자 · 임영식 · 조아미(2003). **청소년 문제행동-심리학적 접근-**. 서울: 학지사.

- 한영옥·김문혜(2003).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행동문제와의 관계에 대한 획문화적 고찰. *아동학회지*, 24(1), 47-59.
- 허혜경·김혜수(2002). 청년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Abouserie, T. M.(1994). Sources and levels of stress in relation to locus of control and self-esteem in university students. *Educational Psychology*, 14(3), 323-331.
- Achenbach, T. M.(1991). *Manual for child behavior checklist/4-18 and 1991 profile*. VT: Univ.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chenbach, T. M.(1993). *Empirically based taxonomy: How to use shndromes and profile types derived from the CBCL/4-18, TRF, and YSR*. VT: Univ.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lnaes, R. & Torgersen, S.(1990). Parental representation in patients with major depression, anxiety disorder and mixed conditions. *Acta Psychiatric Scandinavia*, 80, 518-522.
- Baber, B. K.(1992). Family, personality,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J. of Marriage and Family*, 54, 69-79.
- Baker, R. W. McNeil, O. V. & Siryk, B.(1985). Expectation and reality in freshment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1), 94-103.
- Barnes, H. & Olson, D. H.(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 D. H. Olson, H. I. McCubbin, A. Larsen, Muxen, M. & Wilson, M. *Family Inventories*. MN: Univ. of Minnesota.
- Barnes, G. M. & Farrell, M. P.(1992). Parental support and control as predictors of adolescent drinking, delinquency, and related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4, 763-776.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uehller, C. & Gerard, J.(2002). Marital conflict, effective parenting, and children's and adolescents' mal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78-92.
- Caspi, A., Henry, B., McGee, R. O., Moffitt, T. E., & Silva, P. A. (1995). Temperamental origins of child and adolescent behavior problems: From age three to age fifteen. *Child Development*, 66, 55-68.
- Cassdy, J. & Asher, S. R.(1992). Loneliness and peer relations in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3, 350-365.
- Crick, N. R. & Grotpeter, J. K.(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evelo pment*, 66, 710-722.
- Dunn, J.(2001).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conflict and prosocial behavior: Lessons from research on social understanding and gender. In J. Hill, & B. Maughan (Eds.). *Conduct disorder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49-66),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Eric, J. M. & Russell, A. B.(1996). *Child psychopathology* (Eds.). NY: Guilford Press.
- Galambos, N. L., Barker, E. T. & Almeida, D. M.(2003). Parents "do" matter: Trajectories of change in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s in early adolescence. *ChildDevelopment*, 74(2), 578-594.
- Galvin, K. M. & Brommel, B. J.(1986). *Family communication-Cohesion and change-(2nd Eds.)*. IL: Scott & Foresman.
- Gottfredson, D. C., Gottfredson, G. D. & Hybel, L. G. (1993). Managing adolescent behavior: A multi-year, multi-school study.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0, 179-215.
- Kim, K. J., Conger, R. D., Elder, G. H. Jr. & Lorenz, F. O.(2003). Reciprocal influences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adolescent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Child Development*, 74(1), 127-143.
- Krettenauer, T., Ullrich, M., Hoffman, V. & Edelstein, W. (2003). Behavioral problem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s predictors of ego-level attainment in early adulthood. *Merrill-Palmer Quarterly*, 49(2), 125-153.
- Kauffman, J. M.(1981).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behavior disorders*(2nd ed.) Columbus: Bell & Howell Company.
- Kupersmidt, J. B. & Coie, J. D.(1990). Preadolescent peer status,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as predictors of ex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1(4), 1350-1362.
- Ladd, G. W.(1990). Having friends, keeping friends, making friends, and being liked by peers in the classroom: Predictors of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1(4), 1081-1100.
- Loeber, R. & Hay, D. F.(1997). Key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and violence from childhood to early adult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8, 371-410.
- Lober, R. & Stouthamer-Loeber, M.(1998). Development of juvenile aggression and violence: Some common misconceptions and controversies. *American Psychologist*, 53, 242-259.
- Moffitt, T. E., Caspi, A., Rutter, M. & Silva, P. A.(2001). *Sex differences in antisocial behavior: Conduct disorder, delinquency and violence in Dunedin Longitudinal Stud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Patterson, G. R.(2002). The early developmental of coercive family process. In J. B. Reid, G. R. Patterson, & J. Snyder(Eds.). *Antisocial behavior in children and*

- adolescents: *Developmental theories and models for invention*, 25-44,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Pettit, G. S., Bates, J. E. & Dodge, K. A.(1997). Supportive parenting, ecological context, and children's adjustment: A seven-year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8(5), 908-923.
- Rabiner, D. L., Keane, S. P. & MacKinnon-Lewis, C.(1993) Children's beliefs about familiar and unfamiliar peers in relation to their sociometric status. *Developmental Psychology*, 29, 236-243.
- Reynolds, W. M.(1992). *Internalizing disorders in children and adolescents*(Ed.). NY: Wiley.
- Rutter, M.(1987).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 316-331.
- Shek, D. T. L.(2002). The relation of parental qualities to psychological well-being, school adjustment, and problem behavior in Chinese adolescents with economic disadvantage.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0, 215-230.
- Silove, D., Parker, G., Hadzi-Pavlovic, D., Manicavasagar, V. & Blaszczynski, A.(1991). Parental representations of patients with panic disorder and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59, 835-841.
- Windle, M.(1992). A longitudinal study of stress buffering for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522-530.